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직접금융 자금조달 감소

채원영 연구원

■ 2012년 4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총 10조 2,971억 원으로 전월 13조 1,567억 원에서 21.7% 감소하였으며 2012년 1~4월 중 누계기준으로는 총 46조 9,3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48조 5,892억 원에서 3.4% 감소하였음.

● 반면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2012년 4월 말 기준 577조 6,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3,000억 원 증가하였음.

■ 주식발행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규모는 연초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로지역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세계경제침체 가능성, 중국의 경제 성장 불확실성, 국내 민간소비 둔화 조짐 등으로 인한 증시 불안이 원인으로 보임.

● 2012년 4월 중 주식발행 규모는 574억 원으로 전월 1,703억 원 대비 66.3% 감소하였음.

– 기업공개는 1건¹⁾ 183억 원으로 전월 대비 286억 원(61.0%) 감소하였으며, 유상증자는 3건,²⁾ 391억 원으로 전월 대비 843억 원(68.3%) 감소하였음.

● 2012년 1~4월 중 누계기준 6,2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조 4,569억 원 대비 85.9% 감소하였음.

– 2011년 2월과 4월에 있었던 대규모 유상증자³⁾ 2조 4천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69.3% 감소하였음.

■ 2012년 4월 중 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2조 7,467억 원 감소한 10조 2,397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회사채 발행제도 개편⁴⁾에 따른 회사채 선발행⁵⁾, 카드채 수요 감소 등이 원인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외)

1) 비아트론.

2) 아바코 205억 원, 티치엔 20억 원, 이래엔에스 166억 원.

3) 2011년 2월 하나금융 1조 3,000억 원, 2011년 4월 신한금융 1조 1,000억 원 각각 유상증자 하였음.

4) 2012년 4월부터 회사채 발행 시 수요예측이 의무화되고 대표주관 계약 체결이 의무화 되는 등 발행제도가 개편되었음.

5) 2012년 1분기에 18조 1,094억 원의 일반회사채가 발행되어 2009년 1분기(18조 7,436억 원)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임.